
L'OREAL
L'OREAL

GILLETTE, FREGA, 그리고 L'ORÉAL

L'ORÉAL THROUGH GILLETTE · 02

어느 날 저녁 호텔에서, 나는 방문과 판매 순회를 막 마치고 돌아왔고, 아버지도 마찬가지였다. 우리는 잠시나마 함께 지내려고 같은 호텔을 쓰곤 했는데, 대략 넉 달에 한 번, 일주일쯤 그런 일이 있었다.

우리 테이블로 Giorgio라는 호감 가는 동료가 왔다. 그는 L'Oréal의 영업 담당으로, 대형 유통에서 판매망을 조직하는 일을 맡고 있었다. 그들은 향수 전문점에서 슈퍼마켓 쪽으로 옮겨 가는 중이었고, 전통적인 시장은 그들이 강한 곳, 곧 제품과 Corolle 화장품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는 크론병을 앓고 얼마 전에 퇴원한 참이었다. 그는 젊었다. 마흔다섯 살. 하지만 기력이 좋지 않다는 것이 눈에 보였다.

그는 내게 다음 날 경로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내 고객들에게 자기를 소개해 줄 수 있는지 물었다. 그러면 도로 지도를 볼 필요도 없고 일도 빨라질 테니까. 한번 해 보기로 했다.

아버지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고 잠자코 계셨다. 그것은 찬성한다는 뜻이었다. 그렇지 않았다면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이다. "Nando, 들어 봐라, 우리 얘기 좀 하자." 그것은 "너 도대체 무슨 짓을 하는 거냐"를 뜻하는 아버지의 방식이었다.

Giorgio와 나는 친구가 되었고, 거의 2년 동안 고객 순회를 함께 다녔다. 다만 한 달에 일주일을 넘긴 적은 없었다.

88년에 Gillette가 두 개의 제품 사업부, 곧 Shaving과 Personal Care를 만들기로 했을 때, 나는 생활용품을 파는 일이 더 힘들다는 것을 더 잘 알게 되었다. 그러다 89년에 나는 Shaving으로 돌아갔

고, 그는 내게 큰 도움이 되었다. 우리가 경쟁 제품을 판 적은 한 번도 없었지만, 나는 L'Oréal에게서 많이 배웠다.

Giorgio와 함께 2년을 보내는 동안 많은 일이 있었지만, 정말 중요했던 것은 두 가지만 기억난다.

한 도매 고객, 대학을 갓 졸업한 젊은이가 우리를 자기 사무실로 맞아들이고 말했다. "두 분을 함께 부른 건 두 분의 제품이 필요해서입니다." Giorgio가 일어나 출구 쪽으로 걸어가더니 바깥 간판을 확인했고, 놀란 젊은이는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그는 웃으며 돌아왔다. "장소를 잘못 찾아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고객의 사무실이 아니라 경찰 본부에 들어온 것 같아서요." 다들 한참을 웃었고, 그 뒤로 모두가 그 이야기를 들었으며 우리를 볼 때마다 미소를 지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밀라노에서 누군가가 내게 전화를 걸어 L'Oréal 동료와 더 이상 함께 다니지 말아 달라고 정중하게 부탁했다. Gillette Personal Care 사업부의 샴푸가 팔리지 않는데, 그게 L'Oréal을 팔아 준 Frega 탓이라는 것이었다. 아하하하하하.

어느 날 우리는 Giorgio와 함께 식품 도매상을 찾아갔다. 내가 그에게 Frega라고 불러 달라고 하고 Gillette를 대표한다고 말하자, 그는 두 팔 벌려 나를 반겼다. 나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Giorgio의 차례가 되어 그가 L'Oréal에서 왔다고 하자, 도매상은 방금 기름 두 트럭을 내렸으니 다음에 다시 와 달라고 사정했다. Giorgio가 곧바로 받아쳤다. "씨앗기름이요, 올리브유요?" 고객이 말했다. "걱정 마세요, 둘 다 살게요. 다시 오시면 주문하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Frega는 도움이 필요 없으니까요."

그는 쉰두 살에 젊어서 세상을 떠났다. 그리고 그에게 고마움을 전하려고, 나는 딸에게 그의 이름을 지어 주었다. Giorgia. 그에 대한 기억이 영원히 나와 함께하도록.

Ciao, Giorgio.

Ferdinando